

# '책의 올림픽' 국제도서전시회

## 각국 문화의 각축장... 해외시장 진출의 발판되기도

세계각국의 체육인들이 모여 기량을 겨루는 곳이 올림픽이라면, '책'을 통해 자국의 문화수준을 뽐내는 또다른 올림픽이 바로 국제도서전시회이다.

현재 전 세계 30여개국에서 매년 30회 이상 열리고 있는 국제도서전들은 이름 그대로 도서의 전시라는 기능 뿐만 아니라 수·출입 상담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見本시장'의 역할을 다하고 있어, 구미 출판계에서는 출판에 관한 거의 모든 정보가 가장 치열하게 교류되는 중요한 행사로 자리잡은지 이미 오래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국제저작권협약(UCC)에 가입하면서 국제무대에서 그 위치를 견실히 하고 있고,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우리 도서의 국제출판시장 진출의 필요성과 가능성이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되고 있어, 국제도서전에 대한 관심도 전에 없이 증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30여개국에서 매년 30회 이상 열려

국제도서전은 크게 두가지로 구분된다. 우선 순수하게 비즈니스 차원에서 출판인·서적상·도서관 관계자들이 모여 도서의 수출입을 논하고 저작권계약을 맺는 견본시장(Book Fair)으로서의 전시회를 꼽을 수 있다. 또 하나는, 국제단체의 총회나 기타 국제회의와 병행하여 개최함으로써 그 회의에 참석한 이들을 상대로 여는 도서전시회(Book Exhibit)가 있다.

국내 출판계에서는 대한출판문화협회의 주선으로, 지난 1956년 워싱턴 세계아동도서

전을 필두로 1988년 8월말 현재까지 130여회에 걸쳐 세계 각국의 도서전에 도서의 출판은 물론 대표단을 파견해오고 있다.

우리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전시회로는 우선 독일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을 꼽을 수 있다. 그 규모나 질적인 면에서 세계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이 전시회는 독일출판·서적상연합회 주최로 해마다 열리고 있다. 올해로써 40회를 맞이했는데, 올 10월5일부터 10월10일까지 6일간 개최될 전시회에도 서독의 1890여개 출판사, 영국 888개사, 미국 563개사, 중공 68개사, 소련 63개사 등 총 90여개국의 7500여 출판사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돼 그 어마어마한 규모를 짐작케 한다. 우리나라는 1961년 13회부터 참가, 1987년 39회까지 22회째 총 41개 출판사가 580여종의 도서를 출품한 바 있다.

유럽지역에서 열리는 도서전들 중 우리와 비교적 친숙한 또 하나의 전시회로 「볼로냐 아동도서전」이 있다. 1964년부터 볼로냐전시조직위원회에 의해 개최되고 있는 이 전시회에는, 해마다 전 세계 80여개국에서 천여명의 아동도서 출판인들이 모여 自社의 아동 및 청소년 도서, 학교교재, 교육용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등을 전시 판매하고 있다. 그런가하면 아동도서라는 특수성을 살려, 전시회 출품도서 중 가장 뛰어난 일러스트도서를 선정해 '에르바 비평가상'(Premio Critici In Erba)을 수상하는 것으로도 권위를 자랑하고 있다. 국내 아동도서 출판계 종사자들의 특별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이 전시회에 우리나라가 참여하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인 1983년 20회

부터. 지난 4월7일부터 4월10일까지 열렸던 25회 전시회에는 56개국 1218개 출판사에서 13500여명이 참가했는데, 우리나라도 358종의 어린이책을 출품했다.

미국에서 열리는 도서전들 중 우리가 매년 참가하고 있는 전시회로는 「미국도서관협회 총회도서전」과 「동양학연구협회도서전」이 있다.

올해로 107회를 맞은 미국도서관협회전시회는 총회에 참여하는 도서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 출판계로서는 미국 도서관들의 한국학에 대한 관심을 돋구는 좋은 기회가 아닐 수 없는데, 지난 1960년부터 금년 7월 107회 전시회에 이르기까지 총 5천여권의 도서를 출품해오고 있다.

미국 미시간대학 부설 동양학연구협회가 지난 1949년부터 총회의 부수행사로 개최하고 있는 동양학연구협회도서전 역시, 전세계에서 발간된 이 분야 연구서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장으로 권위를 자랑하고 있다. 국내 출판사들이 이 전시회에 참가하기 시작한 것은 1976년 캐나다 토론토총회에서부터인데, 지난 3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렸던 40회 도서전에도 6명의 출판인이 참가해 286종의 도서를 전시했다.

그밖의 전시회로는 멕시코 국립대학 자치회가 주최하는 「멕시코 국제서적박람회」와 터키 문화관광부가 주최하는 「터키 국제아동서적박람회」 그리고 인도의 「뉴델리도서전」 등이 있다. 이들 전시회는 각각 지난 3월, 4월, 5월에 멕시코시티와 앙카라 그리고 뉴델리에서 개최되었는데, 우리나라는 4백여권의 도

### 주요 국제도서전 일람

전시회명	개최국	일 시
카이로 국제도서전	이집트	1.26~2.8
켈커타 도서전	인도	1.27~2.7
DIDACTA 88	스위스	2.2~2.6
뉴델리 세계도서전	인도	2.5~2.15
브뤼셀 국제 도서전	벨기에	3.5~3.13
멕시코 국제 도서전	멕시코	3.5~3.13
동양학연구협회 도서전	미국	3.25~3.27
런던 도서전	영국	3.28~3.30
볼로냐 아동도서전	이태리	4.7~4.10
부에노스아이레스 도서전	아르헨티나	4.8~4.25
파리 국제도서전	프랑스	4.14~4.20
보고타 국제도서전	콜롬비아	4.29~5.9
터키 국제아동서적 박람회	터키	4.23~4.29
제네바 국제도서전	스위스	5.11~5.15
바르샤바 국제도서전	폴란드	5.18~5.23
미국 도서관협회 도서전	미국	7.9~7.12
상파울로 국제도서전	브라질	8.25~9.4
북경도서전	중공	9.1~9.7
바르셀로나 국제도서전	스페인	9.27~10.2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독일	10.5~10.10
유고 국제도서전	유고	10.25~10.31
몬트리올 국제도서전	캐나다	11.17~11.22

\* 개최일시는 88년도. 해마다 약간씩 변경됨

서만을 출품하고 전시안내·수출입상담은 현지 공관의 관계자에게 일임했다.

## 가브리엘 G. 마르케스



**백년동안의 사랑** 연속판

가브리엘 G. 마르케스  
鄭性鎬 옮김  
\* 대형국판 • 값 3,700원

원제 ● 콜레라시대의 사랑

「백년동안의 고독」으로 노벨상을 수상한 라틴아메리카 문학의 거장 마르케스의 新作 51년 9개월 4일간의 깊은 사랑 얘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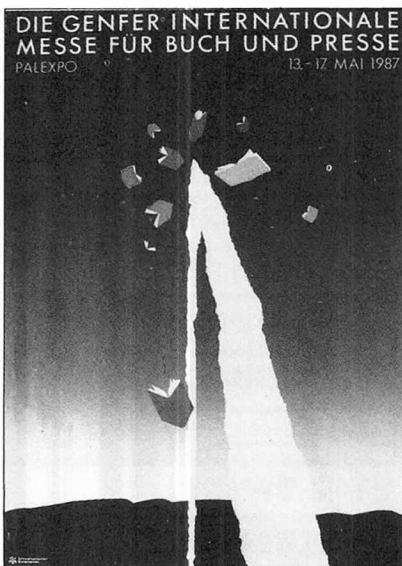
圖書 東亞 733-5045 735-9100

## 中國大河歷史小說

# 阿片戰爭 제①부 뜨거운 바다



소위 경제대국이라는 영국이 동양에 대한 침탈행위를 어떻게 자행했는가, 현대사에 상징적으로 부각되는 아편전쟁 ● 이것은 결코 지울 수 없는 역사의 반흔이다 ● 국내 최초로 공개되는 중국대하역사소설 \* 계속 출간됩니다



지난 87년 독일에서 개최되었던 「프랑크푸르트 국제도서전」 포스터.

위에서 언급한 전시회 외에도 일본 「동경 국제도서전」, 캐나다 「몬트리올국제도서전」, 벨기에 「브뤼셀국제도서전」, 프랑스 「니스국제도서전」, 「싱가포르국제도서전」 등이 있는데, 국내 출판계에서는 과거 5회 이상 참가해 오다가 현재로서는 중단된 상태.

#### 국내 출판계의 인식부족부터 타개해야

국제도서전시회는 세계 각국에서 모여든 출판인들과 고급의 출판정보를 교환할 수 있으며, 특히 출판시장이 좁을 수밖에 없는 국내 출판계로서는 국제 시장으로의 진출을 탐색해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아닐 수 없다.

80년대 들어, 도서의 단순한 출품이나 전시의 차원을 넘어서 상당량이 국제도서전시

회에서 실제 판매거래되는 추세에 있는 것이 사실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도서전에 대한 국내 출판인들의 이해는 아직도 태부족한 현실이다.

“외국 출판인들과의 교류를 넓히고 저작권을 교류한다는 점에서 국제도서전의 참가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솔직히 우리 출판계에서는 도서전에 대해 소극적이다 못해 무관심한 형편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인식부족을 개선하고, 더욱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출판문화협회李斗映 사무국장은 지적한다. 일부에서는 국제도서전에 관한 협회의 정보가 너무 느리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지만, 현단계에서는 도서전 참여 자체에 대한 출판인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그 필요성을 널리 홍보하는 일이 더욱 급선무라는 얘기도.

사실 국내 출판인들이 국제도서전을 외면하는 가장 큰 장애요소로서는, 우선 국제도서전에 출품하여 호응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을 개발·출판하는데 경제적인 부담이 크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현재 도서전 출품도서의 선정은 출판협회와 문화공보부 해외공보관 양측의 협조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의 문화를 소개하는 화보 중심의 고급 책자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하나, 국내에서 출판되는 외국어도서의 대부분이 영문이라는 점도 비영어권 도서전으로의 진출을 가로막는 요소가 되고 있다. 최근 제2회 제네바국제도서전시회에 참가하고 돌아온 白允基씨(고문사 대표)는, 유럽지역의 도·소매 도서유통업자들이 수출입을 상담해왔는데 이구동성으로 불어판만 찾더라

고 자신의 경험을 말했다. 영어가 세계공통어로 사용되고 있다는 안이한 생각에서 비영어권 언어의 도서출판을 외면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 불어·독어 도서만이라도 활발히 출판해낸다면 우리의 책이 유럽시장을 활발히 파고 들 수 있을 것이라고 그는 자신있게 말했다.

그러기하면 국제도서전에 참여하여 보다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사전준비에 철저함을 기해야 하겠다는 반성의 소리도 높다. 지난 4월 볼로냐 아동도서전시회에 국내 출판계에서는 유일하게 참가했던李種培씨(국민서관 편집부장)는, 우리 상품을 소개하는 외국어 홍보물을 거의 준비해가지고 가지 않아 큰 애를 먹었다고 밝힌다. 여러 곳에서 한국도서에 관심을 표명해왔지만, 홍보자료도 부족한데다가 현지 유학생이 피상적인 내용을 안내하는 정도에 불과해 실질적인 상담이 이뤄지기는 힘들었다는 것이 그의 말이다. 올해 이 전시회에는 약 4백여종의 우리나라 도서가 출품되었는데, 자사의 책만을 출품해놓고 그에 대한 홍보에는 적극성을 보이지 않는 각 출판사들의 소극적인 태도 역시 시정해야 할 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 ‘참가 의의’에서 ‘시장 개혁’으로

한편 도서전시회가 책만을 전시하는 것이 아니라 인쇄·제본·사진·일러스트 등 연관 분야의 정보들이 폭넓게 교류되는 장소로서의 역할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의 연관업계들이 도서전시회 참가를 남의 집 행사로만 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

다. 실제 도서전에 참가했던 이들은, 예상외로 인쇄에 관한 상담이 많이 들어오더라고 말하며, 특히 인쇄업체의 국제 도서전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또한 최근 들어서는 제3세계와 공산권 도서전시회에 대한 관심도 높아가고 있다. 특히 9월1일부터 7일까지 북경시에서 열리고 있는 북경도서전에 9명의 국내 출판인이 참관인으로 참여하고 있어, 앞으로의 공산권진출을 조심스럽게 점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국립출판물수출입회사의 주최로 지난 86년부터 격년제로 열리고 있는 북경도서전은 대만을 포함한 30여개국의 1070여개 출판사가 참여하고 있는 대규모 국제도서전. 올해에는 단독 전시관을 확보하지 못하고, 홍콩의 도서수입회사폴리스프링社(Polyspring Co.Ltd)를 통해 「문화재대관」(대학당), 「한국의 문양 1·2」(안 그래픽스) 등 몇 종류만을 출품했으나 앞으로는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며, 내년에는 모스크바국제도서전시회와 유고도서전시회의 참가의사도 적극 타진할 계획이라고 출판협회李斗映 국장은 밝혔다.

따라서 국내 출판계에서도 세계시장에 적극 뛰어들기 위해서는 국제도서전에 활발히 참가해야 함은 물론, 단순히 도서전시대를 설치하고 판매하는 일 뿐 아니라 외국 출판사들과의 실질적인 업무교섭이 이뤄지고 국내 실무자들이 선진 출판기술을 습득하는 실제적인 비즈니스의 장으로서의 이용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오애리 기자

# 저는

편집분야로의  
진출을  
원합니다!

성명 : 서울편집디자인학원생  
나이 : 일 부러먹기 가장 좋은 나이  
성별 : 남+녀  
경력 : 실무 2년 이상의 실력과 대응  
취미 : 편집  
성격 : 책 만들기에 적절한 성격 소유자  
근무희망처 : 책 만들기와 씨름하는 곳이면 어느 곳이나  
기타 : 정말 열심히 일해드리겠습니다.  
문의 : 671-8317

#### 편집디자인 정규반 제2기 모집

◇모집기간 9월1일~9월30일  
◇개 강 10월 5일

관심  
서울영등포구당산동1가455-1  
672-1841, 1842